

## 녹취록 개요

녹 음 파 일	4. 220828 23-47 서현역 성폭행 관련2
녹 음 일 시	2022년 8월 28일 23시 47분 경
녹 음 형 태	전화 통화 녹음
쪽 수	표지 외 5쪽
대 화 자	여자_1_유혜원(고소인) 남자 1_최준혁(피고소인)


붙임과 같이 녹취록을 제출합니다.

- 붙임 1) 녹취개요 1부  
2) 녹취록(대화내용) 1부  
3) 원본녹음 CD 1매  
4) 사실확인증명서 1부 끝.

십 인 의 속 기 녹 취 사 무 소 공 증 필



## 비밀청취 엄정준수문서

담당 속기사	손 효 진
비고	

※ 내용 흐름의 이해를 돕기 위해,  
일부 불필요한 중복 어구 및 침삭, 어순 정리는 속기사의 재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.

## 『 녹 취 록 』

- 파일명 : 4. 220828 23-47 서현역 성폭행 관련2\_(2분 36초)
- 녹음일시 : 2022년 8월 28일 23시 47분 경
- 유혜원 : 서현역에 그 서머셋호텔에서 내가 하지 말했는데 너 계속해서  
나 우는데 너 막 했던 날 있지?
- 최준혁 : (정적)
- 유혜원 : 그때 그 얘기를 했더니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.  
“ 그 상황이 어떻게 생각나느냐” 라고.
- 최준혁 : 응.
- 유혜원 : 그래서 내가 그냥 그림처럼 생각난다고.  
그냥 그 방 그림이 전체적으로 멀리서 막 영화처럼 보인다고  
했더니,
- 최준혁 : (정적)
- 유혜원 : 이것도 내가 막 부정하는 그런 현상 중에 하나라며, 이런 게.

- 최준혁 : (정적)
- 유혜원 : 여보세요?
- 최준혁 : 응. 어, 듣고 있어. 여보세요?
- 유혜원 : 어. 너 왜... 그 기억이 안 나?
- 최준혁 : 아니야. 아니야.
- 유혜원 : 근데 왜 사과 안 해, 끝까지?
- 최준혁 : 혜원아, 미안해. 그때 그렇게 느끼게 만든 것도 미안하고...
- 유혜원 : 그때도 ‘ 그냥 남자친구니까...’ 그냥 넘어갔는데, 너 나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그런 식으로 행동했어?
- 최준혁 : 어, 아니야, 혜원아.  
너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한 거 미안해. 혜원아.
- 유혜원 : 어. 니가 한 행동 그렇게 막 싫다고 하고, 우는데도 억지로 하는 거 그것도 완전... 그것도 ‘ 성폭행 ’ 이래.
- 최준혁 : 아니야, 혜원아.
- 유혜원 : 그때 너 어떤 사람인지 알았으면 그런 식으로 안 끝냈어.



- 최준혁 : 어?
- 유혜원 : 방금 전에,
- 최준혁 : 아냐, 아냐, 혜원아,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.
- 유혜원 : 니가 뭐 잘못했는지는 알아?
- 최준혁 : 알고 있어, 혜원아...
- 유혜원 : 뭘 잘못 했는데?
- 최준혁 : 혜원이 너 그런 마음이나 생각은 이렇게 고려하거나 배려하지 않고 나 중심으로 이렇게 나만 생각해서 미안해, 혜원아.

- 끝 -



# 사 실 확 인 증 명 서

발급자격-국가공인 1급속기사

《자격번호 10-G2-000095》

신 청 인	의뢰처 (의뢰인)	유 혜 원
	담 당 자	개인정보유출방지에 의거_(기재안함)
사실 확인 내용	<p>신청인이 제시한 음성녹음파일 「전화 통화 녹음」을 청취하고, 녹음된 녹음대로 녹취록을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</p> <p>① 녹음일시· 장소· 대화자는 신청인의 진술에 따른 것임 ② 명확히 알아들을 수 없는 부분은 “ *** ” 로 표기하였음 ③ 사무소의 간인은 십인의 속기녹취사무소 직인으로 대체함 ④ 내용 흐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불필요한 어구 및 침삭 어순 정리는 속기사의 재량으로 정리하였습니다.</p> <p>※ 녹취록의 임의 위변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</p>	
용도	경찰, 법원, 검찰 등 공공기관_(제 출 용)	

2022년 9월 6일

위 기록은 녹음 내용을  
상이 없이 속기법에 의하여 기록,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
십 인 의 속 기 녹 취 사 무 소 ( 공 증 필 )

